

문서번호 : 제2019-바-001호
일 자 : 2019년 06월 21일
발 신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수 신 : 금융감독원 시장정보분석팀
제 목 : 공매도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 의뢰의 건

1. 귀 원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5~7위 규모인 바이오 기업으로, 미국의 자회사를 통해 10여년 간 항암제 개발을 해 왔으며, 그 최종 결과인 글로벌 3상 임상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3. 최근 당사에서 빈번하게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는바, 공매도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을 감안 하더라도 그 매매 형태가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형태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4. 즉, 공매도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투자회사가 공매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량을 이용하여 주가하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보유중인 공매도 포지션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주가조작의 형태로 의심되는 바, 이는 비단 당사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 되며, 이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 함은 물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행 태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1. 조사 의뢰 법인명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2. 주가 조작 의심 내용

: 2019년 06월 14일 공매도수량이 322,432주(비중 28.21%, 거래대금 239억)로 급증함 에 따라 공매도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익일 공매도 거래 중지가 되었으나 18일, 20일 역시 공매도 수량이 272,946주(비중 27.01%, 거래대금 198억), 330,767주(비중 37.32%, 거래대금 230억)로 거래되면서 계속 공매도과열종목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5 영업일 동안 3번연속 공매도과열종목 지정)

현재의 공매도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 형태로, 공매도의 업틱룰에 따라 현재가격 아래 로 매도주문을 내지 못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물량을 최우선 매도

가로 내놓고, 별도로 시장에서 매수한 소량의 물량(업틱를 미적용)을 현재가 이하로 매도하면서 추가하락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물론 업틱룰에 따라 주문을 내는 매도물량은 하락하는 주가에 부응하여 매도호가를 계속 하향 수정하게 됩니다

대량의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호가에 대량 주문을 내놓고, 시장에서 매수한 수량(업틱를 미적용)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 시키는 형태인 것입니다.

시장에서 매수한 주식은 유사시 숏커버링 물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매도 포지션이 강화되었을 때는 추가하락을 유도하는 시세 조종용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회사의 판단입니다

특히 매매가 집중되는 시간이 주식장 개시 후 한 시간, 그리고 주식장 마감 전 한시간인 걸 감안하면 불공정 거래행위는 뚜렷해 보입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외국계 증권사인 CS증권과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국내 증권사의 연관성도 충분히 의심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3. 주가조작 의심 형태 요약

- : 공매세력이 대량의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 . 시장에서 매수한 주식을 매도(시장가 아래)하면서 가격하락을 유도
 - . 업틱룰에 따라 매도 주문한 수량의 반복 하향 수정 주문
 - . 장개시 후 한시간과 장마감 전 한시간 정도에 상기 형태 집중

4. 요청사항

회사가 정확한 매매행태의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운 바, 위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가려 주시길 바라며, 만약 불법성이 입증된다면 시장을 교란한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에 이 치 엘 비 (주)
대 표 이 사 진 양 곤